

치과위생사 교육과정 연구

박일순

동우대학 치위생과

색인: 교육과정, 치과위생사

1. 서론

1970년대 국가경제의 발전과 사회구성원의 학력상승 등에 기인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숙련된 의료인력의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변화된 요구와 필요성은 구강건강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구강병의 예방과 교육, 관리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치과위생사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하였으며, 그 역할 역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요인들로 1977년 전문대학에 2년 과정의 치위생과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에는 학제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4년 과정의 대학이 신설되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치과위생사 양성은 4년제 3개 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43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신설된 대학은 12개교이며, 2001년 이후 신설된 대학도 3년제 16개교와 4년제 3개교 등 모두 19개교에 달하

고 있다.

이렇게 양적인 측면에서의 치과위생사 양성은 급증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치과임상분야와 구강보건분야에서 예방치과처치, 구강보건교육,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치과위생사의 75.2%가 위의 역할 중 보조분야에 해당되는 치과진료보조와 병원환자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치과위생사의 공급 부족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전문성 부족에 의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치과진료보조사^{1,2)}를 양성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들은 국민의 향상된 구강보건서비스와 치과위생사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치과위생사 본연의 직무인 예방치과처치나 구강보건교육 업무에서 벗어나 이같은 업무에만 치중할 경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결여는 결국 치과위생사의 지위를 약화시켜 구강보건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더욱 훼손할,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그 존립조차도 위협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한편, 치위생학 분야의 역사가 짧은 탓에 이 분야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어떤 체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아직까지 충분한 정도의 전문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위생학 자체의 이론적 정체성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유휴화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렵다(김인식 외, 2000).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김숙향³⁾(1997)은 치과위생사 본연의 역할 중심인 예방치과처치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권현숙⁵⁾(1999)은 각국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의 치위생과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황미영⁶⁾(2000)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못하므로 인하여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통합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한계성을 내포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모두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전문화를 언급하면서도 치과위생사 역할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규정하거나 혹은 치과위생사의 현재 역할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위생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인식은 관련 주체마다 다르며, 각 주체 사이에도 그 의견이 달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업무처리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된 치과위생사의 불분명한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상 검토된 내용들에서 알 수 있지만 향후 전문성을 강화시킨 치과위생사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치과위생사의 불분명한 지위 및 역할의 규명과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자들과는 달리 먼저 불분명한 치과위생사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3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치위생분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치위생과 교수 58명, 치과의사 164명, 치과위생사 253명, 치위생과 학생 496명을 단순임의추출법을 사용하여

표집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치위생분야 교육전문가는 전자우편 및 직·간접 방문에 의하여 실시 후 회수하였으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각 소속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치위생과 학생은 11개 대학 치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조사 목적을 설명하여 설문지의 이해도를 제고시킨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교수는 모두 130부 배부하여 61부를, 치과의사는 200부 배부하여 165부를, 치과위생사는 300부 배부하여 261부를, 학생은 600부 배부하여 503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교수 58부, 치과의사 164부, 치과위생사 253부, 치위생과 학생 496부를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성적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표본인 교수는 빈도와 백분율만으로 분석하였다. 교수의 경우 표본수가 외래강사 7명을 제외하고 51명에 불과하지만 모집단인 전국 치위생과 교수협의회에 등록된 전임교수의 수가 2002년 기준으로 115명이므로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모집단의 의사를 대표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편, 보다 표본이 큰 집단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증(χ^2)과 빈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행 교육과정 분석과 치과위

생사의 직무 분석에는 빈도 분석 및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 5점 척도에서의 점수는 긍정적인 대답일수록 높게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안

3.1 치과위생사의 지위와 역할

치과위생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점은 공통된 설문내용을 각 조사대상자별로 전문성 확보 정도와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로 구분하여 비교한 다음 논의한다.

먼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보 정도를 대상으로 5점 척도 점수를 통해 살펴보면 치위생과 교수는 2.71, 치과의사는 3.29, 치과위생사들은 평균 2.93, 학생들 2.34로 나타나 업무의 전문성이 그다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은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나 치과위생사나 치과의사는 보통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치과의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보다 강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치위생과 교수는 공급부족으로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집단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및 학생은 치과 경영 체계상의 문제로가 각각 40.7%, 54.5%,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과 관련한 치위생과 교수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예방치과 처치가 4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치과의사는 치과진료보조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병원·환자관리가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예방치과처치가 38.7%로 가장 많았고, 구강보건교육자가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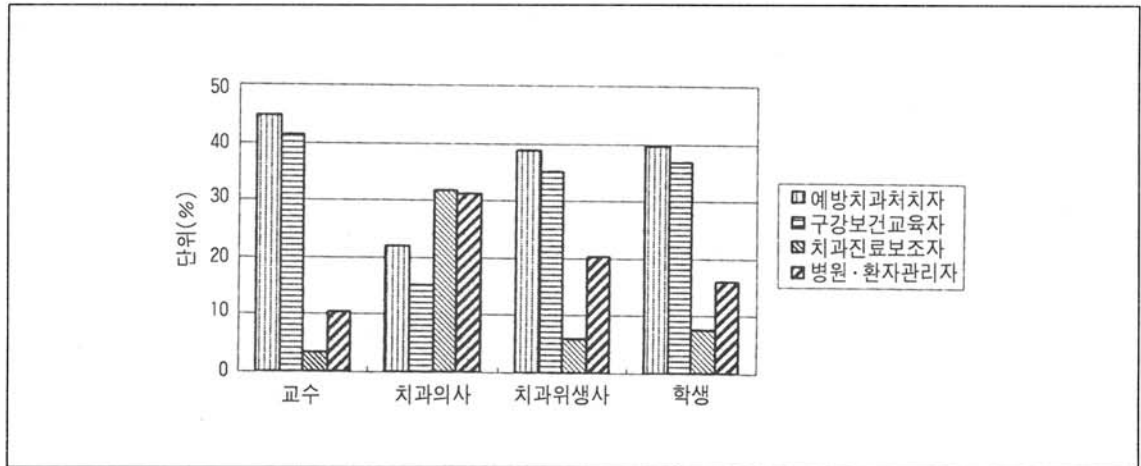


그림 1.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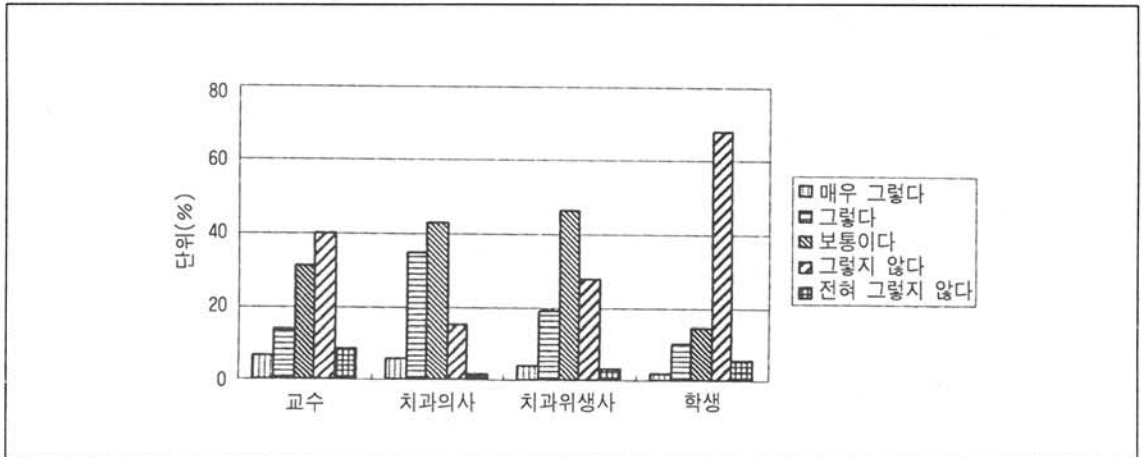


그림 2. 업무의 전문성 확보 정도

%, 병원·환자관리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예방치과처치자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은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치과위생사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와 나머지 집단의 인식 차이가 매우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 업무의 전문성 확보정도에서도 치과의사와 나머지 집단과의 인식 차이가

크게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치과의사는 보조자 역할로서의 치과위생사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런 측면에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교수와 학생은 대체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은 주로 진료보조와 병원·환자관리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예방치과처치 및 구강보건교육과는 그 인식

표 1. 치과위생사의 현재 및 향후 주요업무

단위 : 명(%)

구분	업무	현재의 주요업무(1)	향후 담당해야 할 주요업무(2)	(1) + (2)	응답자 합계 명(100%)
예방치과	치석제거(수기구 사용)	53(27.9)	19(10.0)	118(62.1)	190
치치분야	치석제거(초음파기구)	56(24.6)	15(6.6)	157(68.9)	228
	치주낭 측정	20(11.9)	78(46.4)	70(41.7)	168
	치아우식활성검사	10(6.5)	120(77.4)	25(16.1)	155
	식이조절	13(8.6)	112(74.2)	26(17.2)	151
	구강검사	45(21.2)	64(30.2)	103(48.6)	212
	불소도포	32(14.6)	70(32.0)	117(53.4)	219
	치면열구전색	38(16.7)	72(31.6)	118(51.8)	228
구강보건	잇솔질 교육	59(25.5)	19(8.2)	153(66.2)	231
교육분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54(24.9)	28(12.9)	135(62.2)	217
	구강보건교육매체 개발	12(7.5)	125(77.6)	24(14.9)	161
	구강보건교육매체 활용	20(11.6)	121(69.9)	32(18.5)	173
	구강보건교육(개인 및 집단)	12(6.3)	125(65.8)	53(27.9)	190
치과진료	진료 준비	164(77.4)	14(6.6)	34(16.0)	212
보조분야	보존진료 보조	120(57.1)	12(5.7)	78(37.1)	210
	보철진료 보조	107(56.9)	9(4.8)	72(38.3)	188
	치주진료 보조	121(57.9)	11(5.3)	77(36.8)	209
	외과수술 보조	99(51.0)	18(9.3)	77(39.7)	194
	교정진료 보조	121(57.3)	12(5.7)	78(37.7)	211
병원행정 및	진료기록부 관리	78(34.5)	32(14.2)	116(51.3)	226
경영관리분야	접수	72(31.2)	31(13.4)	128(55.4)	231
	전화 응대	80(36.0)	23(10.4)	119(53.6)	222
	환자 관리	83(41.3)	29(14.4)	89(44.3)	201
	경영 관리(의료보험청구 등)	85(40.5)	30(14.3)	95(45.2)	210
치과기자재	진료기구관리(멸균, 소독 등)	114(54.0)	8(3.8)	89(42.2)	211
및 재료관리	치과기자재 관리	108(55.7)	11(5.7)	75(38.7)	194
취급분야	치과재료 관리	108(56.5)	9(4.7)	74(38.7)	191
	치과재료 혼합	118(57.0)	6(2.9)	83(40.1)	207
	총의치 및 지대치 인상채득	31(14.6)	81(38.2)	100(47.2)	212
	임시치관 제작	74(40.0)	40(21.6)	71(38.4)	185
구강방사선	구내촬영(등각, 평행)	89(40.3)	15(6.8)	117(52.9)	221
촬영분야	구외촬영(파노라마, 세팔로 등)	53(28.8)	54(29.4)	77(41.8)	184
	디지털 방사선 사진 촬영	24(15.4)	91(58.3)	41(26.3)	156
	현상 및 정착	101(46.5)	16(7.4)	100(46.1)	217
	필름 구입 및 관리	99(48.3)	18(8.8)	88(42.9)	205

의 차이가 확연하다. 그러나 일부는 특히 치과 위생사의 경우는 병원·환자관리업무에 대한 선호로 인해 전문성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같은 집단간 혹은 집단 내 인식의 차이는 결국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에서 치과위생사들의 현재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주로 보조업무에 해당하는 치과진료보조, 병원행정 및 경영관리, 치과기자재 및 재료관리 취급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예방치과처치분야나 구강보건교육분야가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를 바라보는 치과의사, 치위생과 교수의 일방적인 시각 그리고 치과위생사 본인들의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인식 부족 등이 치과위생사가 전문화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인식한다든지 혹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보조업무에 치중되고 있음을 들어 보조업무를 강조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특성상 실기시험이 매우 중요시 될 수 있음에도 필기시험 위주의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해야 할 업무의 규명을 통한 정확한 인식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진료 협력업무와 보조업무로 구분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구분은 <표 2>에서 나타내었는데, 협력업무는 치위생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서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보조업무는 치위생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 아니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로 단순 보조 역할 중심의 업무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업무의 특성상 협력업무와 보조업무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은 설문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보조업무에 포함시켰으나 여기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협력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열하면 예방치과처치분야, 구강보건교육분야 전체와 병원행정 및 경영관리분야 업무 중 환자관리 및 상담, 치과기자재 및 재료 관리취급분야의 업무 중 총의치 및 지대치 인상채득과 임시치관제작 그리고 구강방사선 촬영분야 업무 중 구내 및 구외 촬영, 디지털 방사선 사진촬영 등이 그것이다.

보조업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치과진료보조분야 업무, 환자관리 및 상담을 제외한 병원행정 및 경영관리, 치과기자재 및 재료관리 취급분야 중 진료기구 관리, 기자재 관리, 치과재료 관리, 치과재료 혼합 그리고 구강방사선 촬영분야의 현상 및 정착, 필름 구입 및 관리 등이다.

향후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에서는 업무를 협력업무와 보조업무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설정하되 협력업무를 중심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하여야 치과위생사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2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공통된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각 조사대상자별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등 3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의 문제점들의 논의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치위생과 교수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

표 2. 치과위생사의 업무 구분

구분	업무	협력업무(1)	보조업무(2)	(1) + (2)
예방치과	치석제거(수기구 및 초음파기구)	✓		
치치분야	치주낭 측정	✓		
	치아우식활성검사	✓		
	식이조절	✓		
	구강검사	✓		
	불소도포	✓		
	치면열구전색	✓		
구강보건	잇솔질 교육	✓		
교육분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		
	구강보건교육매체 개발	✓		
	구강보건교육(개인 및 집단)	✓		
치과진료	진료 준비		✓	
보조분야	보존진료 보조		✓	
	보철진료 보조		✓	
	치주진료 보조		✓	
	외과수술 보조		✓	
	교정진료 보조		✓	
병원행정 및	진료기록부 관리		✓	
경영관리분야	접수		✓	
	전화 응대		✓	
	환자 관리 및 상담	✓		
	경영 관리(의료보험청구 등)			✓
치과기자재 및	진료기구관리(멸균, 소독 등)		✓	
재료관리	치과기자재 관리		✓	
취급분야	치과재료 관리		✓	
	치과재료 혼합		✓	
	총의치 및 지대치 인상채득	✓		
	임시치관 제작	✓		
구강방사선	구내촬영(등각, 평행)	✓		
촬영분야	구외촬영(파노라마, 세팔로 등)	✓		
	디지털 방사선 사진 촬영	✓		
	현상 및 정착		✓	
	필름 구입 및 관리		✓	

주) 협력업무 : 치위생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보조업무 : 치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로 단순 보조역할 중심의 업무

(1) + (2) : 업무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업무

해 예방·공중분야가 29.3%와 구강보건교육분야가 20.7%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병원·환자관리 분야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장임상실습 분야가 19.5%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병원·환자관리분야와 현장임상실습분야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9.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생은 예방·공중분야가 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구강보건교육분야가 22.1%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교수와 학생들은 예방·공중분야와 구강보건교육분야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병원·환자관리분야와 현장임상실습분야의 교육 강화를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현장과 실제업무가 서로 상이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치과위생사의 주역할인 협력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예방·공중분야와 구강보건교육분야보다는 보조 역할에 해당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함은 실상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치과위생사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치위생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 교재, 교구의 구비 정도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치위생과 교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학생의 5점 척도 점수가 각각 3.13, 3.01, 2.92, 3.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 모든 집단이 구비정도가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시설 등이 잘 구비되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할 때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험실습 기자재의 낙후 정도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교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학생의 5점 척도 점수 각각 3.10, 3.16, 3.15, 3.04로 나타났

는데, 이는 조사대상 모든 집단이 교내 실험 실습에 필요한 보유 기자재의 낙후정도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비정도와 마찬가지로 낙후된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만족도는 교수와 학생에 대해서만 설문하였는데, 교수는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이다의 경우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만족하는 교수가 36.2%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은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이다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경우가 44.1%로 만족하는 학생의 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임을 학생들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중복되어 나타난 결과이겠지만 교육의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들에서 치위생과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위해 전공교육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수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공교육의 분야별 체계적인 분류가 31%, 전공교육의 분야별 통폐합 25.9%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51.8%로 가장 많았고, 전공 교육분야별 체계적인 분류 44.3%, 전공교육의 분야별 통폐합 4%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위생과 교수 및 치과위생사는 전문화를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각각 72.3%, 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상(산업체)의 요구에 부응이 15.5%, 12.3% 학문연구의

방법론적 기초 제공이 8.6%, 10.7%, 공중구강보건분야의 교육강화가 3.4%, 9.1%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대부분이 전문화를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경우 앞의 전문성 확보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는 치위생과 교수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교수들은 22.4%가 현행 교육과정에서 내용 유사 과목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들은 현행 전공 교육과정에서 현장임상실습 강화가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치위생과 교수의 조사결과는 치위생(학)과 교육목표 중 전문인 양성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방치과처치가 25.9%, 구강건강증진 및 향상이 19%, 그리고 구강보건관리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조사결과는 전문성 양성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구강보건교육이 17.4%, 예방치과처치가 16.2%, 구강건강증진 및 향상이 9.9%, 구강보건관리가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와 치과위생사 모두 치위생(학)과 교육목표 중 전문인 양성을 가장 중요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치과위생사들은 앞의 예들과 달리 구강보건교육이나 예방치과처치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보아 역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공 교육과정 문제점 중 국가시험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이 19%, 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형태로부터 탈피 13.8%, 전공과목의 분야별 통폐합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

다. 치과위생사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가시험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 22.1%, 전공과목의 이론과 교내 실험실습 교육의 불균형이 17.8%, 전공과목 교육내용의 미비 및 경직성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는 다르지만 교수와 치과위생사 모두 국가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 부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들에서 국가시험의 전문성 강화 도움 여부에서 교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증 취득이 치과위생사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가시험의 필요성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시험의 현장적응능력의 검증 정도는 교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는 5점 척도 점수 각각 2.54, 2.8, 2.78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현장적응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집단 모두 국가시험이 현장적응능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시험의 치위생(학)과 교육목표 부합 정도에서 교수의 65.5%가 보통이다라고 대부분 응답하였으며, 치과위생사는 5점 척도 전체 평균이 3.21로 국가시험의 치위생(학)과 교육목표와 부합되는 정도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

현행 국가시험 형태의 전문성 강화 도움 정도에서 교수는 현행 국가시험 형태의 전문성 강화 도움 정도에 보통정도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치과위생사는 현행 국가시험 형태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시험 난이도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교수와 치과위생사 모두 현행 국가시험의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해 보통정도의 인식을 하였으나, 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에 비중을 치과위생사는 그렇지 못한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는 학교별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를 고려한 측면에서 치과위생사는 조금 어렵다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측면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시험 필기 및 실기시험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교수는 국가시험을 필기시험 10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치과위생사들은 국가시험의 필기 및 실기시험 비율은 60:40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들의 경우 필기시험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현장적응능력을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실기시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치르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

험을 치르게 하는 절차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3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3.3.1 교육내용 분류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교육분야의 내용에 있어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선호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볼 수 있다. 즉 교수나 학생의 경우는 예방공중 및 구강보건교육을 선호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진료보조나 병원환자관리에 관한 교육을 그리고 치과위생사는 병원환자관리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예방공중이나 구강보건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치과위생사의 교육내용이란 전문성 확보에 앞서 이들 각 이해집단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목표하에 <표 2>에 제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분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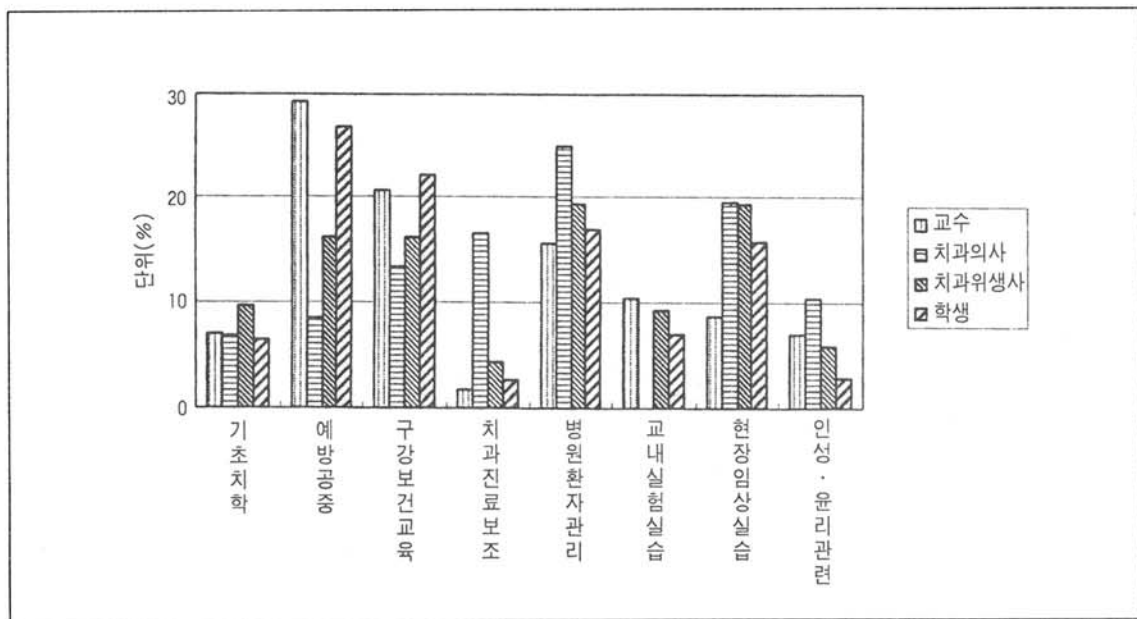


그림 3.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교육분야

여 새로운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치과위생사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입장에서의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협력업무와 보조업무 분야의 교육내용을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양과 기초치학분야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되 협력분야의 업무와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즉 예방치과처치 및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구강방사선 촬영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된 형태로 전공필수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내실습교육 및 현장임상실습(전공실무연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강보건교육학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및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업무분야의 내용은 전공선택분야에서 총괄 통폐합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또한 설문에서 교수의 71.4%가 적극적으로 교직과목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 역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교구강보건실 등 치과위생사의 취업분야를 확대키 위한 교직과목의 개설 및 확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양 및 기초치학분야를 바탕으로 교육을 하되 예방치과처치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중구강보건학 및 실습, 예방치학 및 실습, 치면세마론 및 실습을 한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 지역사회구강보건실습을 한다. 그 외 구강방사선학 및 실습과 현장임상실습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해 교육하여야 한다. 특히 구강방사선학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 부문의 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에 의해 치과의사 등으로부터 치과위생사들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의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각 대학별 현장임상실습 기간이 8주에서 20주까지 다양한데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전공실무연수기관과 대학간 산학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의해 현장임상실습시의 프로그램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간 표준화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실습시의 교육 및 지도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구강보건실 개설 증대에 따른 구강보건교사(가칭) 채용예상에 따른 자격부여와 관련하여 교직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그 자격기준에 부합한 교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3.3.2 평가방법의 설정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상 교육내용은 교육평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교육평가의 과목이 교육내용과 달리 이루어진다면 제도적으로 상기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시험 위주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분류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이와 연관한 형태의 평가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방법은 국가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를 설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의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 설문에서 교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5점 척도 점수가 각각 3.62, 3.58, 3.76 으로 조사대상 집단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면허증 취득과

관련이 있는 국가시험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의미하며 보다 잘 활용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시험의 치과위생사 현장적응능력 검증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치위생과 교수는 보통이다 55.2%, 적극적 부정 43.1%로 나타나 국가시험의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교수,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5점 척도 점수가 각각 2.54, 2.8, 2.78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모두 검증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시험이 치과위생사의 현장적응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를 위한 역할과 관련하여 볼 때 향후 국가시험은 협력업무 중심의 현장적응능력을 주로 검증하는 형태로 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다. 즉 협력업무 중심으로 시험과목을 선정하되 보조업무와 관련된 과목들의 통합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적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협력업무 중심의 실기시험 강화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 단순보조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셋째, 국가시험 형태의 전문성 강화 도움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교수, 치과위생사의 5점 척도 점수가 각각 2.91, 3.54로 치위생과 교수는 현행 제도가 대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내는데 이는 긍정적인 답변이 조금 우세한 치과위생사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결국 무차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집단 모두 국가시험에 있어서 필기와 실기시험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과목의 선정 역시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치과위생

사들도 국가시험의 기본적인 형태에는 긍정적인 이지만 세부 시행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시험 난이도에 있어서 교수, 치과위생사의 5점 척도 점수가 각각 3.16, 3.23으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치위생과 교수들은 난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치과위생사들은 국가시험이 어렵다는 대답은 많이 하여 난이도가 하향조절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험난이도는 향후 점차로 높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다섯째, 국가시험의 필기와 실기시험의 비율은 필기시험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위생과 교수의 경우 필기시험의 비율을 100%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5%나 되어 그러한 인식이 상당히 강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치과위생사들은 현행과 비슷한 6:4 정도의 비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실기시험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험의 비율 조정을 통한 방법보다는 시험의 절차를 개선하여 실기시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시험을 강화시켜야 한다.

4. 결 론

국가경제 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 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로 표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치과의료 분야에서도 치과위생사라는 독립적인 전문직업

인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보조자로서 출발하였던 관계로 인해 전문화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그 한계성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치과위생사들을 치과 의료계의 단순 보조자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인으로 성장시키는 물론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였다. 조사 분석에서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은 62.9%가 진료보조와 병원·환자관리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예방치과 처치 및 구강보건교육과는 그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다.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20.2%가 병원·환자관리를 주요 역할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관련 집단간 및 집단내 인식의 차이는 결국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방치과처치 및 구강보건교육 분야가 향후 담당해야 할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이 된다. 이 역할을 중심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협력업무와 보조업무로 구분하였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화를 위해 교양과 기초치학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하되 협력업무 분야인 예방치과처치,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구강방사선촬영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체계화하고 강화하여 전공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내실습교육 및 현장

임상실습도 이를 중심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보조업무분야의 내용은 전공선택으로 총괄 통합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취업분야를 확대키 위해 교직과목의 개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평가 부분인 국가시험의 치과위생사 현장적응능력 검증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조사대상 집단 모두 검증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국가시험에서 협력업무분야 중심의 현장적응능력을 주로 검증하는 형태로 시험을 치러 그 검증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가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 시험의 절차를 실기시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시험을 강화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1. 정세환(2003). 1년제 구강진료보조사 개발 방안. 대한구강보건학회
2. 정세환·마득상(2003). 새로운 구강진료보조인력개발에 대한 구강진료인력의 견해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
3. 김숙향(1997). 치과위생사 역할 중심 치과위생학과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 김인식, 최호성, 권현숙(2000). 치위생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론. 교육과학사
5. 권현숙(1999). 치위생사 양성기관의 표준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황미영(2002). 치과위생사 통합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탐색.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Curriculum of Dental Hygienists

Il-Soon Park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U College

Key words: curriculum, dental hygienist

The aim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define and clarif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Second, based on that definition, present an improved dental hygienist curriculum, improving their special competence.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way for promoting role of dental hygienists as independent specialists, rather than as auxiliaries, contributing to better dental service in the process.

The research was pursued by surveying by questionnaire those directly related to dental hygiene. They are 58 professors of dental hygiene, 164 dentists, 253 dental hygienists and 496 dental hygiene students, selected by the method of simple random sampling.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sample, professors' group was analysed only through frequency and probabilities. For groups with larger samples (dentists, dental hygienists,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of chi square(χ^2) tests, frequency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used in their analysis.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role and fun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was defined and clarifi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main role of the dental hygienists as perceived by 62.9% of dentists was supporting treatments and managing patients and facility. This perception by dentists differs significantly to perception of other groups, which saw main role of dental hygienists as preventive dental treatment and dental hygiene education. Also, only 20.2% of dental hygienists perceived patients and facility management as their main role. This divergence of perception between groups weakens speciality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To strengthen dental hygienists' speciality competence, preventive dental treatment and dental hygiene education must be defined as main role of dental hygienists. Furthermore, role of dental hygienists can

be categorized into cooperative and auxiliary role.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speciality competence of dental hygienists, their education must be augmented with curriculum emphasizing cooperative role. Specifically, courses on preventive dental treatment,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dental X-ray photography must become compulsory, as well as becoming more comprehensive and organized. Also, training in schools and hospitals must be focused on those subjects. In addition, courses concerning auxiliary role must be incorporated into optional courses and more pedagogical courses are needed to widen students' career choices.

Third, practical relevance of national dental hygienist certification examination must be heightened. In the survey, all groups gave negative response to questions concerning practical relevance of national dental hygienist certification test. Specifically, contents of the tests must be changed to test participants' competence in the cooperative area. Also, the test itself must be strengthened by adding practical examination to the certification scheme, as well as having more difficult examinations.